

# 간호사 경력자의 검시관 체험 연구

한진숙<sup>1</sup> · 박인숙<sup>2</sup>

<sup>1</sup>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2</sup>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e Coroners

Han, Jin Sook<sup>1</sup> · Park, In Sook<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postmortem- examination experiences of nurse career coroners (forensic investigators), to hav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s, and ultimately to lay the foundation for nurses' entry into the field of forensic nursing.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ix coroners. After an in-depth interview from January to June 200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 as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Four categories emerged from seven theme clusters. The four categories were: attracted by being dubbed a stabilized public official, a sense of achievement due to having clarified false death, self-confidence after distinguishing the victim and the wrongdoer, eternal developmental potential is see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nurses who are interested in becoming coroners. It will be helpful for career nurses to extend their nursing science into emerging fields like coroners and select a follow-up career.

**Key words:** Nurses, Experience, Coroners, Qualitative research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의 활동범위도 다양해지고 그 영역 또한 신속히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임상, 보건 분야, 보건교사, 산업장 보건관리자, 연구소, 간호장교, 교수, 해외 간호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항공분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헬스케어 사업, 금융기관, 보험기관, 노인요양 분야 등으로 진출하여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영역 중에 최근 들어 매스컴을 통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검시관으로의 진출은 또 다른 간호영역의 장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06).

인간의 죽음은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소중하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문화나 종교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매우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윤회적 사상이 근간이 되어 전통적으로 죽음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후손들은 시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며, 그로 인해 시신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장례 문화가 발달하였다(Korean Society of Culture Theology, 2004; The Korean Folklore Society, 1995). 즉,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시신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매장하는 장례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사체에 어떤 처치가 가해지는 것을 비윤리적인 처사로 믿고 억울한 죽음조차 부검을 도외시하던 전통은 점점 바뀌고 있다. 현대는 법으로 진위를 가리는 검시가 늘고 있으며, 억울한 죽음과 애매한 죽음으로 인한 법적

주요어 : 간호사, 경험, 검시관,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I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oonhwa 1-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6 Fax: 82-42-584-8915 E-mail: ispark@cmu.ac.kr

투고일 : 2007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4월 3일

갈등 등 과학과 법의학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검시(檢視,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는 사실을 조사하여 보는 것(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02)으로, 여기에서는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Lee, 2002),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Kwak et al., 2002)을 말한다. 이는 변사자의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검시(檢屍, medico-legal examination)와 구별되며, 檢屍는 檢視의 한 과정으로 포함이 되며 사체의 외부만 보는 검안(檢眼)과 부검(剖檢)으로 구분한다.

검시제도(檢視制度)의 중요성은 단지 사법적 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검사에서 확보된 검시과정과 결과는 개인의 법적 권리 보호는 물론 국가의 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의학적 측면에서 각종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향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질병예방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의학발전 및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의 정책수립에 기여해야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사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진위를 밝히고,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무고한 죽음을 예방하며 나아가 검시제도의 개선 의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대륙법계 검시제도를 따르면서 검시 집행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이며, 사법 및 행정적 권한에서도 다른 대륙법계의 겸임 검시제도와 다르게 검사에 그 권한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수사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동수사 단계의 전문성 결여로 수사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Hwang, 2003; Kim, 2001). 초동수사의 중요한 현장 보존과 현장 수사 내용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학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사건 현장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Lim et al., 2003; Park, 2002;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egislatile Counseling, 1996). Kim (2001)은 이러한 인력으로 의사를 교육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현실에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인 인력의 교육이 미진하다(Hwang, 2003).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간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하여 전국의 각 경찰서에 배치하여 효율적이고도 정확한 검시 정보수집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시스템을 운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2005년 경찰청에서 첫 공채로 채용한 검시관에 간호사 출신의 지원자들이 근무를 함으로써 일반직

검시관 활용이 현실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 경력자가 검시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먼저 간호사 경력자들이 검시관으로 활동하는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현재 간호영역에서 검시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으며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의간호학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간호사들의 전문 활동 분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경력자들이 검시관으로서 활동하는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여 본질을 추구하고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질문은 '간호사 경력자들의 검시관으로서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검시관으로서 경험하는 검시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으로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들의 경험을 양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경험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경력자가 검시관이 되어 겪는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생생하게 발견하여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일반직 검시관으로 채용된 사람 중에서 간호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연구 대상 가능자 총 18명 중에서 6명을 면담하였다. 표집방법은 간호사 경력의 검시관들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이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의 소속 기관의 상관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면담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것과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익명성 및 비밀보장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직 경찰과의 관계, 현재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익명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위의 사항이 전

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들은 간호계와 자신을 위해서 더욱 진지하게 면담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 6명의 연령은 30-40세까지였으며 임상 경력은 3년에서 15년이었다. 검시관 직전의 근무지는 5명이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명은 병원 근무 후 학교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였다. 이들의 학력은 전문대(2명)와 대학(4명)을 졸업하였고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2명과 석사 학위 소지자 1명, 박사 학위 소지자 1명이었다.

### 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 훈련 과정으로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이수한 후 질적 연구로 학위를 받았으며 공동 연구자는 여러 편의 질적 연구 논문지도 경험이 있다.

###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별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시관의 직업 특성상 참여자가 근무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면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6명을 면담하였으며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편안하고 조용한 카페나 참여자의 직장에 있는 면담실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작하였다. 질문은 주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긴장감을 풀게 한 뒤 면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 갔다. 그런 다음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으로 심층면담에 들어갔으며 주요 질문은 '검시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어떻습니까?', '간호사로서 검시관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간호사 경력이 검시관 근무에 도움이 됩니까?', '검시관으로서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였다. 검시 업무상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므로 면담 약속이 매우 어려웠으나 막상 면담이 이루어진 후에는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고 참여자 1인에 1회씩 실시하였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면담내용에서 '간호사 경력자의 검시관 체험'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 의미의 본질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Co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 (1978) 방법에서 연구자는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의 경험

을 순수하게 전체로써 접근하며 결과는 연구자에 의해 지각된 것으로서의 전체 행위에 대한 기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경력자들의 검시관으로서의 경험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반복하여 읽었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2단계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로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를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가 원자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였고 5단계에서 도출된 의미의 구성, 주제, 주제 모음으로 묶었으며 이를 범주화하였다. 6단계로 지금까지의 참여자의 체험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였고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7단계로 본질적 주제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정으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현상학적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주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연구자들은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녹취작업을 하였고 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 있는 단어와 구, 문장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제와 주제 모음을 분명히 하고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미를 확인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며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7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로 19개의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주제들을 묶어서 7개의 주제군을 구성하였고 이를 4개로 범주화하였다. 이들 4개의 범주는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매력에 끌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느끼는 성취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주고 느끼는 자부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을 도출하였다.

### 1.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매력에 끌림

#### 1) 새롭고 안정된 직업으로 인식됨

##### (1) 호기심을 자극 받다

참여자들은 처음 생기는 일반직 검시관의 업무 성격이나 지위, 보수와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종이라는 호기심으로 검시관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였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하게 된 동기는 검시관이 새로운 직종이라는 것과 처음 시작이라는 것에 끌렸어요. 국가 공무원이고 특히 간호사를 처음 뽑는다는 것도요. 검시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참여자 1, 2).

## (2) 안정된 생활(공무원)을 추구하다

참여자 모두 공무원을 현재의 직장보다 미래가 보장되고 3교대 근무의 어려움이 없는 안정된 생활로 인식하고 공무원으로의 진입을 꿈꾸고 어떤 어려운 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공무원을 더 선호하였다.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원했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사실 젊었을 때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데 공무원을 하면 연금제도가 있고 노후에는 사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곳은 일이면 어때. 공무원인데.'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강했어요(참여자 1-4).

아이가 돌이고 아이들이 5살, 3살이었는데 중환자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봐주실 형편도 안 되고, 몸이 아프시고 농사도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24시간 일할 때 맡겨줄 데가 밤 근무도 하나씩 힘들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기대수준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 2).

## 2) 낯선 일에 대한 두려움

### (1)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참여자들은 검시관을 시작한 초기에 검시관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변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는 검시 결과가 참여자 자신의 잘못에 기인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임상경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예민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검시관 일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업무를 걱정하고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처음에 검시가 적응이 안 되어서 동료 선생님하고 많이 울었어요. 사체가 억울한 것을 하나라도 더 볼 수 있게 해 달라

고 기도도 하고요. 중요한 단서를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현장에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아! 이거 왜 못 봤지?'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어요.

내가 사인(死因)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지 않을까?, 내 잘못으로 살인사건인데 자살로 판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한 검시 보고로 현 사건을 판독하는 데 착오를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경험이 없어서 경험부족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요(참여자 1, 2, 4).

### (2) 사체를 접할 때 두려움을 느끼다

검시관들은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의 죽음을 보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변사체는 정신을 추스르고 보더라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어려웠으며 주변이 어지럽고 사고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더욱 당황하였다. 병원에서 이미 예정되었거나 적어도 죽음을 예측한 상태에서 환자의 죽음을 대할 때와는 달리 사건 현장은 낯선 곳에 낯선 사람이 변사체로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은 오래 남는다. 변사체를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정확한 검시를 해야겠다는 울퉁은 마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검시를 하였다. 이런 두려움은 많은 검시관이 검시 초기에 겪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검시관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고현장에 갈 때마다 두려워요. 낯선 곳, 낯선 사람, 또 얼마나 험하게 돌아가셨을까?, 제가 겁이 많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추락사고 현장을 갔었는데,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검시관이 되고 뭐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게 어려웠거든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보니까 그분들도 예전에 그랬대요(참여자 4, 5).

### (3) 초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다

가족들은 참여자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검시관이 된다고 할 때 반대를 하였다. 신앙을 가지고 참여자를 지지해 준 남편도 있었지만 좋은 직장을 두고 예로부터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피하는 직업인 시체를 만지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위의 시선도 느껴졌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검시 일을 하면서 검시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고취되

여,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 지원 한다고 할 때 가족이 반대했어요. 병원에서 9년 차, 10년차가 되면 과장급인데 왜 그러냐고. 다른 아는 분들도 제게 왜 그런 험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인식들을 그냥 그런가보다고 생각해요. 검시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참여자 3).

남편이 극구 말렸어요. 그거(시체) 못 본다. 자기도 시체를 딱 한 번 밖에 못 봤대요. 그것도 목매단 시체를 봤는데, 보고 나서도 그 영상이 안 잊어져서 바로 타 부서로 지원해 버렸대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나는 간호사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도 많이 보았고 죽은 환자에 칼이 꽂혀있는 것도 다 봤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래요. 부패되어 있는 거는 관보다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 아이들을 위해 밤 근무를 벗어나야 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참여자 2, 5).

## 2.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느끼는 성취감

### 1) 해야 할 일을 함

#### (1)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 풀어 주다

참여자들은 검시관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매장되거나, 제3의 힘에 의해 사인이 왜곡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 경력을 가진 본인들이 앞장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 이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는 시체를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줘야 한다. 누구든지 이런 일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아 해야겠다. 처음에는 무섭고 그랬지만 점점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죽은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맘먹고 시작해서 지금은 만족해요(참여자 2, 4, 6).

#### (2) 타인의 삶에 끼어들게 되다

참여자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변사자의 지난 간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 등 사인이 될 만한 사안들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되고,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하며, 말 못하는 망자에게 무언가 베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시신을 만지면서 죽음과 관련해서 조서를 읽게 되면 내가 한 사람 인생에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살아 왔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구나.’ 또 다른 인생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제가 뭔가를 풀어 주면 유가족들의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의 원한을 달래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아니어도 억울함이 있으면 몇 년 후라도 증거가 되도록 마지막을 지켜 주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중요한 사람 같아요(참여자 1, 4, 6).

## 3.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주고 느끼는 자부심

### 1) 일의 긍지를 느낌

#### (1)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 주다

유가족이 죽음에 의문을 가진 경우 검시관은 조사를 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임을 밝혀내 억울한 죽음을 막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검시관이 판단하기에 자살로 보는데 유족들이 타살인 것 같다면 부검을 의뢰할 때 자살의 물증들을 확보하여 유족을 이해시키면 불필요한 부검을 줄이고 살인 혐의를 받던 사람도 정리가 되는 역할도 하였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검시관이 진위를 밝혀 억울하게 누명을 벗거나 또는 타살인데 자살로 처리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죽으면 의문을 갖잖아요. 누가 이런 이유로 사망했다고 말해 주면 유가족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망자도 더 편하게 가실 거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 줄 수 있다는 것, 돌아가신 사인(死因)을 밝혀서 영동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자살한 사람인데 부검을 하고 형사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유가족도 힘들고 돌아가신 분도 힘드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더 해서 변사자가 타살인 경우는 누구에 의해 살인을 당했는지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하니까... 어차피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인을 정확히 구명을 해 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유가족의 의문을 우리가 풀어 주는 것이고(참여자 2, 4).

#### (2)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다

병원에서 간호사 일이 자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불만이었던

데 검시관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사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검시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다.

채용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이 일은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열심히 하면(누구의 order에 의한 게 아니라) 능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제 의견이 사건에 어필되고 수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제가 간호학에서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참여자 1).

경찰 쪽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받아서 경찰이 부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살(병사)인 것 같다고 설명하고 타살 혐의점 없다고 보고 했더니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검을 안 했어요. 그때 저의 논리가 인정받고 업무상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니까 성취감이 느껴지죠. 병원에서는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법의관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내 실력을 인정받았어요(참여자 4).

### (3) 빠른 판단에서 뿌듯함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타살의 단서를 찾아내서 자살을 타살로 밝히고, 설득력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서 타살이라고 의심했던 사건을 자살로 뒤집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사건 처리 능력이 돋보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대견스러워지고 이미 다져진 과학적 사고와 간호학적 지식들이 바탕이 된 간호사 경력의 검시를 하는 데 빛을 발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직장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였다.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먼저 봐야하는데 예전에는 상황만 듣고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리이러하다고 해서 사인이 밝혀지면 윗사람들은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단순 변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밝혀질 때 정말 뿌듯하죠. 그때는 간호사로서 환자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어요(참여자 2, 5).

## 4.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

### 1) 전문직으로의 발전 가능성

#### (1) 간호사 경력이 장점이 되다

참여자들은 사건 현장을 조사할 때마다 과거의 의학지식들

이 새롭게 다가오고 문제를 보는 눈에 힘이 되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하였다. 간호사 출신의 검시관이 대체로 일을 잘 하면서 윗분들의 인정도 받았고 과거에 간호사로 근무할 때 보호자를 대하던 대인관계 실력은 유족들에게는 탁월한 설득력으로 나타나 사건 관계자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커다란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OO청에 검시관으로 간호사, 유전공학 전공자, 그리고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OOO 선생님이 경찰들과 일선에서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한 이유는 환자를 봐 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접근이 빠른 것 같아요. 아들하고 부모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모셨는데 사인을 조사하는 중에 싸우다 그랬다고 할 때 "싸웠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하고 질문을 하는 것과 "아마 유족께서는 모르셨지만 추정건대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과는 유족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다르잖아요(참여자 1, 2).

### (2)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다방면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검시관으로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활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해서 체계적인 검시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싶어하며 법의 간호학을 공부하여 사회 각처에서 전문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싶어 하였다.

OO청에 OOO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하나 올렸어요. 'OO청 폴리스 맵'이라고 과학수사 인력을 통해서 검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이지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병원 현장에 있었던 간호인력을 DB에 쌓으면 그것도 굉장한 position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1).

◇◇청에서 경찰대상으로 유전자 검색과 분석에 관한 교육과 법의학 강의를 저보고 하게 시켰어요. OOO 선생님도 청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톡톡하다고 극찬을 많이 하셨어요. OOO 선생님이 검시 일을 잘 한다는 평이 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 교육에서 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참여자 2, 4).

수사과학 대학원에 법의간호학과가 생겼더라고요. 앞으로는 학과가 더 많아지지요. 왜냐면 검시제도뿐 아니라 증거공판

주의가 되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법도 전공하고 임상도 알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는 법의간호사가 탁월하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일반 간호사는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지금 법의간호학 생긴 게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서 큰 파워를 형성할 것 같아요(참여자 1, 3).

### (3) 경찰 상관의 인정을 받다

간호사 경력의 검시관들은 검시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워크샵이나 교육 등도 일을 잘해서 상관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동안 지치부진하던 일들을 과거와 차이가 나게 해결해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저희가 주관하여 수사과학연구소 워크샵을 했는데 그곳에 의사이면서 병리학을 추가로 전공하고 국과수에서 부검을 많이 하셨던 분이 참석하여 저희를 보시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짧은 기간 내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범죄분석에 관여했던 분도 저희를 보시고 훌륭한 워크샵이었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다른 팀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실 정도예요. 사실 저희도 세미나 주관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참여자 2).

## 2)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1) 검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검시관에 대해 주변 동료나 타 직종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경찰직 검시관 스스로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기존의 검시관이 새로 들어온 역량 있는 검시관을 기득권으로 누르거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계나 법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건에 관한 정보를 미리 다양하게 형사한테 주거든요. 저희도 m에서 강력사건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저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희들이 시신을 몇 번이나 봤다고 와서 검시를 하냐'는 식이에요. 왜냐면 이제껏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아니어도 우리가 훨씬 잘 알고 하니까 검시관들을 따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저희에게 요청 자체를 안 했어요. △△사건에서 ◇◇일보와 ##일보의 기자한테도 새로 뽑은 검시관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정보를 줘서 검시관을 뽑아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참여자 2).

### (2) 검시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느끼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예로부터 사체를 대할 때 매우 경의를 표함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다루는 직업에 대해서는 천하다고 여기고 경시하였다.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 직업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과거에 염을 하던 천한 신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았다.

검시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임상병리사였는데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그만두었어요. 검시를 하면 장기도 못 가고 집안이 대대로 망하고 시신들이 본인과 가족을 괴롭힌다고. 그런 종교적이신 분들은 그런 걸로 해서 그만두셨어요(참여자 1).

죽은 사람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남의 영혼에 한을 맺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예로부터 사체를 만지면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혼이 해꼬지도 할 수 있고(참여자 5).

### (3) 검시관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다

참여자들은 경찰청 소속의 검시관이면서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경찰과 유연한 관계를 잘 유지했으나 소속을 바꿀 경우 검시관의 위상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검시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나 아직 미지수다. 선진국의 장점을 취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검시제도의 확립을 위해 참여자들 스스로 실력을 갖춰 체계를 잡아 가기를 바란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시관에 대해 인식을 아직 못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정을 못 받잖아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검시관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 내에 외국 시스템을 도입해 와서 확실한 위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일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사회의 억울한 죽음을 줄이자는 것이죠 (참여자 3, 5).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 사람들은 동료지만 과학적인 마인드가 없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1, 6).

### (4) 부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가능하면 사체에 손을 대지 않고 평안하게 예식을 치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도 감춰지

고 죽음에 대한 시비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건해결에서 현장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참여자들은 국민들이 검시에 관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검시관을 포함한 법의간호사들은 국민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장례 문화도 3일장으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 또 내 부모가 이상하게 돌아가셨다거나 그냥 집에 있다 돌아가셔서 원인을 밝혀내고 싶어도 부검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시신을 훼손한다고 불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건 안 해요. 안 하는데 무조건 원인은 밝혀 주세요.' 식의 요구를 해요. 이런 생각들은 바뀌어야 해요(참여자 1).

### 3) 검시제도의 현실적 한계

#### (1) 현장 오염을 막기 어렵다

사건이 접수되어 현장에 가기까지 절차가 있어서 검시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차 수사팀이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인데, 검시제도의 절차를 개선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최초에 현장을 가는 사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훼손된 상태에서 가는 사람하고는 검시 조건이 다르죠. 경찰서의 하부기관인 지구대나 119에서 가장 먼저 현장의 시신을 발견을 해서 사건현장을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현장을 대부분 훼손시키죠. 그래서 1차적인 감염이 되고 그 후에 경찰청에 연락이 오고 사건이 접수되면 우리가 움직이지요. 저희는 청의 소속이라 바로 현장에 가지 못하고 경찰청에서 검시를 하라고 하면 그때 현장을 가는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2차 감염 상태로 가는 건데 그나마 청에서는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이 슈화된 것만 움직여요.

#### (2) 능력발휘의 한계를 느끼다

참여자들은 법의학 지식을 갖추고 충실하게 검시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검시를 한 내용이 검사의 의견과 상반되어 무시되었을 때 무기력해지고 업무상의 한계를 느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사건 현장에 갔다가 '이것은 단순변사는 아닌 것 같고 의문이 간다.' 해도 어쩔 수 없어서 덮어두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저와 같이 일하는 요원들과 담당형사가 그런 내용을 검사에게 올리도록 해요. 그런데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담당검사가 문서와 사진을 보고서도 간과하고 본인의 의견대로 '종결'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경력이 쌓여서 '이건 아니다. 이 사건은 재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가 제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1).

이상의 분석 결과 간호사 경력자들의 검시관 경험에 대한 최종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현재의 직업보다는 공무원인 검시관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하여 근무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타 직종보다 간호사 경력이 검시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방면에서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검시관의 위치가 처음 시작하는 일반직이라서 법적인 보호 등에 있어서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인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검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검시관의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능력있는 검시관이 되어 법의간호학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며 사회 곳곳에서 할 일을 찾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법의학 분야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신분이 간호사들임을 강조하고 많은 간호인력이 법의 분야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의 영역 확대 가능성이 많은 검시관에 관한 연구로 간호사 경력자가 검시관으로 체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매력에 끌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느끼는 성취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주고 느끼는 자부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 등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의 흐름은 낮은 검시직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적응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직업이 주는 매력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검시관을 하면서 느끼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으로 발돋움하게 되며 경험이 쌓이면서 전문직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등의 지속적인 변화로 참여자들이 검시관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직 검시관 제도의 도입은 오랜 기간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검시 발전의 도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Park (2002)과 Lim 등(2003)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동감식과 변사체 검시는 사건의 해결의 기초적인 단계이며 초동감식에서 자료를 소홀히 다루면 사건의 방향이 진실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egislative Counseling, 1996). 이러한 상황에서 검시관 제도가 일반인, 특히 의료보건 종사자에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나, 이미 90년대부터 법무부와 행정부 산하기관에서 지속적인 개선책을 연구하여 왔다(Lim, 2003). 그러나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의료보건계열의 검시관 활용 안이 받아들여져 2005년 첫 간호사 출신 검시관을 채용하였다(Shin, 2006). 정부에서는 검시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임상경력을 갖춘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률적 지식을 갖춘다면 간호사가 전문요원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보고 이들을 검시관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미 자격을 갖춘 참여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검시관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안정감과 3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육아와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고 검시관을 선택한 것에 만족감을 나타낸다. Ko와 Yom (2003)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단지 직장 내 변수뿐만이 아니라 직장 밖의 변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을 직무만족과 연결하여 이직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참여자들은 검시관이 공무원으로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 직장이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승진 등의 자기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Lee (2001)는 간호사의 직무이행도와 업무만족도 및 생산성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소진율은 이직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임상간호사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장래가 보장된 직장으로 이직을 원했던 것이다. Lee, Kang과 Kim (2007)은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경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이 직무만족을 얻는 과정으로 '보람 찾기'를 핵심범주로 찾아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임상간호사의 3교대 근무를 힘들어 하는 현상과는 반하는 결과이나 이들의 연구 내용이 직무만족에 초점을 둔 때문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임상이 아닌 곳에서 나름대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임상간호사 경험은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그 경

험을 바탕으로 한 간호학적 지식에 법의학 지식에 더해서 오히려 사건 현장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뛰어나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2001)가 성취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업무상의 독립성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다거나 죽음의 원인을 올바르게 찾아낼 때는 최고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검시관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처음 부딪히게 되는 변사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지식부족으로 타인의 죽음을 오판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검시관으로서 겪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검시관으로서의 연륜을 다져나갔다. 그러면서 검시관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타 직종 출신의 검시관보다 간호사를 경험했던 자신들이 업무 처리 능력이 탁월함을 느끼게 된다. 그뿐 아니라 간호사 근무 중에 터득한 대인 관계의 탁월성은 그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 뛰어나 사건의 해결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 이는 간호사 경력자로서 느끼는 자부심 중의 하나이다.

참여자들은 검시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초동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였는데 법의학 지식을 갖춘 검시관이 초동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Chang (2004)이 법의학적 자격을 갖춘 초동수사요원의 수사를 통해 강력수사의 허점과 현재의 검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죽음에까지 지켜야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수사 체계의 복잡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며 참여자 자신들은 능력 발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세계의 검시제도는 독일, 일본 등이 채택한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 등이 채택한 영미법계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검시업무는 검찰 또는 경찰이 담당하며 부검은 의과대학에 의뢰하여서 수사가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다(Moon, 1995). 영미법계 중 영국의 검시관(coroner)은 의과대학의 병리학이나 법의학 교수가 하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미국의 법의관은 법의병리전문 자격자가 현장조사와 부검 등의 의학적인 검시(檢屍)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경우 대륙법계 제도이면서 수사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는 등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검시가 시행되지 못하는 변사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5). 이러한 현실은 참여자들이 제시한 수사의 어려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여 자신의 발전과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 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데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희생적인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기 위해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공부를 해서 전문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법의간호학(法醫看護學, forensic nursing)에 대한 관심은 간호사들이 검시관으로 진출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검시관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현재까지 검시관 47명 중 18명이다. 경찰청은 현재의 인력 외에 총 112명의 검시관을 전국에 배치할 계획이다(Kim, 2005; Shin, 2006).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법의간호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Medical Examiner와 Coroner가 활동하고 있고 Forensic Nursing Association 등 각종 협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Kim, 2005). 참여자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검시 분야가 간호사로서는 새로운 개척지이며 전문직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영역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다짐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간호계에서 많은 검시관을 배출하여 또 다른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더 나아가 법의학 관련 영역을 확보하여 간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경력의 검시관이 체험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영역의 한 분야로써 검시관을 포함한 법의간호학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간호사들의 전문 활동 분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매력에 끌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느끼는 성취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주고 느끼는 자부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 등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매력에 끌림'은 '새롭고 안정된 직업으로 인식됨'과 '낮선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출되었으며 두 번째 범주인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야 할 일을 함'에서 도출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주고 느끼는 자부심'은 '일의 긍지를 느낌'에서 도출되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보임'은 '전문직으로 발전 가능성'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검시제도의 현실적 한계'에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 경력자인 검시관은 새로운 직업

에 대한 호기심과 공무원이라는 안정감과 함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상사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빠른 판단과 통찰력으로 사건 처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노력과 결과는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단계적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간호사 경력자들이 법의간호학의 한 분야인 검시관에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간호 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활동 영역이 매우 넓은 법의학 관련 학문을 탐구하여 다양한 법의학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법의간호학을 간호학의 한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검시관 외에 법의학적 간호 관련 분야에 간호사는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며 현재 활동 중인 일반직 검시관들이 시작에 불과한 입장에서 안정된 위치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어 앞으로 검시관의 제도적 입장이 다시 정립될 경우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간호사 경력이 있는 검시관의 정체성 확립과 영역 확대에 관한 질적, 양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Chang, K. H. (2004). *A Study on improvements in the Korean police's ability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unpo.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ba, E., & Lincoln, Y.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Gwang, S. G. (2004). *The legal and systematic reflections on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Hwang, J. J. (2003).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of a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Report)*. Seoul: Police Science Institute.
- Kim, J. S. (2001). *A study on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 Kim, S. J. (2005). *The role model of forensic nurse as a death investigator in Korea funeral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o, J. W., & Yom, Y. H. (200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 my of Nursing, 33, 265-274.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5).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a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Eds.) (2002). *Mosby's medical nursing & allied health dictionary* (6th ed.). Seoul: Hyunmoonsa.
- Korean Society of Culture Theology (2004).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death and life*. Seoul: Handeul Publishing Company.
- Kwak, J. S., Lee, S. H., Lee, S. D., Chae, J. M., Choi, Y. S., & Han, K. L. (2002).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confirming a system of the cause of death* (Research report, pp. 2-12). Seoul: Korean Academy of Legal Medical Science.
- Lee, B. S., Kang, S. R., Kim, H. O. (2007). Experience of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 Application of focus group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14-124.
- Lee, H. J. (2001).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work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571-583.
- Lee, J. S. (Ed.). (2002). *Law of Criminal Procedure* (6th ed.). Seoul: Parkyoungsa.
- Lee, S. O. (2006). From A to Z in the field of advancing to a nurse. *Koreanurse*, 45(5), 20-23.
- Lim, K. O. (2003).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s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im, G. O., Park, H. K., Lee, S. A., Kwak, J. S., Kwak, Y. S., & Chae, J. M. (2003). Current issues on medic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Journal of Criminology* 14, 247-280.
- Moon, K. J. (1995). *The new legal medical medicine*. Seoul: Ilzokac.
- Park, S. S. (2002). *Search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in a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through the joint presence of medical examiners* (Research report, pp. 37-57).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 Shin, M. A. (2006). *Publicity education of medical examiner*. Unpublished manuscrip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The Korean Folklore Society (1995). *Understanding of Korean Folklore*. Seoul: Moonhack Academy.
-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egislative Counseling (1996). *Reference source book for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Unpublished manuscript.